

진안 · 장수 2018년까지 가스 공급

도내 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남았던 진안과 장수지역이 오는 2018년까지 가스 공급 체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미공급 동부권 지역인 '진안군'과 '장수군'이 2018년까지 가스공급이 시작됨으로써 향후 도내 전 시·군의 가스공급 체계는 구축된다.

도는 그동안 14개 시·군 가스공급

진안군, 2018년 10월 도시가스 공급 목표 장수군, 국비 100억 확보 2018년 LPG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에 남원·순창, 무주, 고창, 부안 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를 선정해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또한 미공급 동부권 지역인 진안군과 장수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진안군은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됐으며, 장수군은 정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돼 LPG를 공급하게 됐다.

현재 미공급 지역인 진안군은 전북도와 한국가스공사·군산도시가스가 협약을 체결해 2018년 10월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입실~진안 주배관 공

사를 지난 6월 착공·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2018년에 사용자 세대까지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18년까지 14개 시·군 가스공급체계가 구축될 경우 연료비 절감 및 도·농 간 에너지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서관 문화 축전' 14~16일

전북도교육청이 '도서관 문화 축전'을 연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즐거운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10회 도서관 문화 축전'을 오는 14~16일 사흘간 전북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문화축전에는 도 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며 화합마당과 소통마당, 참여마당, 나눔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화합마당에는 독서문화 작품과 독서 기록물들이 전시되며, 소통마당에서는 독서퍼즐대회와 미술·비보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도내 초등학교 100명이 참가하는 독서 골든벨이 열리고, 책 읽기와 헌책 교환·작가와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도서 열기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라며 "교육가족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



방송통신 지역인재 양성 12일 군산대학교 본부 총장 접견실에서 나이군 군산대 총장(오른쪽)이 TBN전주교통방송 김상규 본부장과 'ICT특성화 방송통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인사 말을 하고 있다.

도, 뉴시어션 사고 예방 장비 지원

전북도는 안전 사각지대인 뉴시어션 분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총 6억여 원을 들여 각종 장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소형어선 첨단 장비, 안전장비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소화시스템, 초단파대 무선전화, 구명조끼, 자동조타장치, 그물인양기, GPS, 어군탐지기, 레이더, 커팅머신(프로펠러 그물제거용) 등의 장비가 지원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뉴시어션 업자와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도 매년 두 차례씩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이용호 "미르, 새마을운동 ODA 사업 관여"

<공적개발원조>

"미르 조희숙 이사 '새마을 분과위' 민간위원 위촉...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추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정부가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마을분과위원회 인선에 미르재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국감에서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새마을분과위의 민간위원 5명 중 1명이 재미있는 분이다. 당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였던 조희숙 한국무역유산진흥센터 대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분과위에) 조 대표를

추천한 게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대표가 있는 한국무역유산센터는 차이나 국약 같은 걸 다루는 곳인데 이게 새마을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전경련이 미르를 만들고 재단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창=이원형 기자

공간정보 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LX공사, 11월 22일까지 공모... 10편 선정 창업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지원에 나선다.

12일 LX공사에 따르면 공간정보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융복합 아이디어를 공모해 Start-up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토와 공간정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및 3인 이내 팀과 5인 이내로 구성된 소기업에서 응모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10편을 선정, 상호 협약을 체결해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지원금은 1000만원~5000만원이다.

LX공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공간 및 SW 개발환경 제공과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

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국무총리상

전북도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사업이 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릴레이 협약체결'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진단 컨설팅사업', '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북도 생물자원 DB 구축사업'과 '자원순환 실천사업으로 전북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지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조성사업 컨설팅',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환경교육 사업으로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 진행', '환경교육네트워크'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가 주최한 지속가능발전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민간포함)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수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다. /고민형 기자

도, '생태관광 페스티벌' 15~16일 개최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전북도가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이틀 간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제2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연다.

'미래를 위한 약속, 생태관광'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생태관광을 알리게 된다.

특히 고창 용계마을을 비롯한 환경부 지정 20개 생태관광 지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등이 생태

관광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홍보부스를 마련한다.

또 생태관광 지역의 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리며, 생태관광과 내장산 등을 주제로 하는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내장호 자연해설 탐방 프로그램과 버스킹밴드 공연, 나무피리 만들기 등도 열린다.

도 관계자는 "생태관광지에 볼거리 등을 조성해 전북이 생태관광의 선도적인 모델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각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